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신형철 문학평론가·조선대 문예창작과 교수

지진이 일어난 그 밤에 난생 처음 집이 흔들리는 것을 경험하고 고향에 계신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그리고 나는, 이 나라 사람 대부분이 그러했겠지만, 이전의 나와는 달라졌다. 지진이 일어나 집이 무너지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했다. 예전에 사 놓은 책 한권 하나를 다시 꺼내든 것도 그 다음날이었다.

‘운명의 날’(니콜라 시라디, 강경이 옮김, 예코의서재, 2009)은 ‘리스본 대지진’(1755년 11월 1일)의 경과와 결과를 잘 정리해 놓은 책인데, 애초 이 책을 사게 된 것은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인문학적 관심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좀 다른 기분으로 이 책을 펼치게 된 것이다.

카르발류가 없다

예전에는 이 책의 후반부, 즉 당대 유럽 지식인들의 다양한 지적 반응들과 상호 논쟁들을 정리한 대목만 읽었다. 이 세계야말로 신이 설계할 수 있는 최선의 세계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을 담고 있는 라이프니츠의 책 ‘신정론(변신론)’(1710)이 리스본 대지진 이후 볼테르의 ‘캉디드’(1759)에 의해 어떻게 논박당했는지를 살피고 이로부터 세계관의 두 유형을 추출해 내서 그 논리적 완결성과 인간적 호소력의 차이를 가늠해 보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내 협소한 관심사의 전부였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책의 앞부분을 읽었다. 지진이 발생한 그 날의 상황, 1차에서 3차까지 계속된 지진의 경과, 그리고 그 막대한 피해와 끔찍한 고통에 대해서.

당시 포르투갈 왕가와 그 측근들의 대처가 눈에 밟혔다. 그날 주재 1세와 그의 가족들은 리스본이 아니라 휴양지 벨렝에 있었기 때문에 목숨을 건졌다. 무능력한 왕은 망연자실한 상태였고 신부들은 신의 심판을 받은 땅을 버려야 한다고 부추기고 있었다. 그때 구원자처럼 나타난 것은 당시 대다수 권력자들보다는 낮은 계급 출신이었던 신하 카르발류였다.

“하느님께서 내리신 이 형벌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겠는가?” 왕이 묻자 카르발

류는 답했다. “죽은 자를 묻고 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어야 합니다.” 이 명쾌한 대답을 듣고 왕은 카르발류에게 비상사태의 전권을 주었으며 카르발류는 카리스마적인 능력을 발휘해 리스본을 재건할 수 있었다.

한 명의 영웅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다는 허황된 생각을 한 것은 아니다. (지진은 예측할 수 없으니) 지진 발생 자체는 신의 뜻이라고 할 수밖에 없더라도, (대처와 복구 등으로 이루어질) 지진 이후의 시간을 결정하는 것은 인간의 뜻이라는 생각을 새삼 했을 따름이다. 재난은 그것이 일어나는 순간만 ‘자연적’일 뿐 재난 이전과 이후는 순전히 ‘사회적’ 사건이다, 라는 책 소개에 이끌려 펼쳐 보게 된 ‘재난 불평등’(존 C 머더, 장삼미 옮김, 동녘)은 거의 같은 재난이 발생해도 부국의 사망자 수는 빈국의 10분의 3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를 보고한다. 요점은 간단하다. 누가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재난의 상처가 현저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것.

오늘날 대한민국의 권력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불법에 연루돼 있는 것 같은데 그 어느 때보다도 당당해 보인다. 정치권력, 사법권력, 언론권력, 그리고 재벌권력들 간의 강고한 이익 연대 바깥

에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그냥 유기(遺棄)돼 있다는 느낌을 받을 정도다. ‘복지’는 커녕 ‘생명’ 자체가 문제인 시대다. 어쩌면 이 나라 최상층 권력자들은 국민 몇 백 명 죽는 것쯤은 과감치 않는 것인가. 세월호 참사로 300명이 죽었고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 수는 400명이 훨씬 넘는다. 국가가 ‘죽인’ 것은 아니지만 ‘죽게 놔 둔’ 것은 맞다. 이런 식이라면, 앞으로 어떤 재난이 오든, 그 재난 이후도 재난일 것이다.

한국영화에 대해 말하자면 작년은 ‘내부자들’과 ‘베터랑’의 해였고, 올해는 ‘부산행’과 ‘타닐’의 해인 것 같다. 앞의 두 영화는 통쾌한 권선징악으로 끝나지만 ‘시적 정의(poetic justice)’는 판타지일 뿐이고 진정한 메시지는 타락한 권력의 적나라한 실상이었다. 집단적·개인적 재난을 다룬 뒤의 두 영화의 진정한 공통점도 주인공(들)이 살아남았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그 생존이 국가의 무능과 비겁에 맞선 개인 각자의 자력 구제로 성취됐다는 사실에 있다. 지금 이곳에는 왕실(권력)의 서사와 백성(재난)의 서사만 있다. 카르발류가 없기 때문이다. 영웅으로서의 카르발류가 아니라 시스템으로서의 카르발류 말이다.

종교칼럼



정세완 원불교 농성교당 교무

달은 원래 보름달입니다

하나이며 원불교 제 2대 총법사인 정산 송규 총사의 탄생지이고 구도지인 성적제 세계인들이 오가는 종교 성지입니다.

성주의 사드배치 지역으로 결정됐던 성산포대는 초전면 성주성지외와 직선거리로 약 16km입니다. 다시 대두되고 있는 롯데골프장과는 도로상으로 2km, 직선거리로 500m 밖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니다. 사드배치 지역은 반경 2.4km까지는 레이터로 인한 전자기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항공기와 각종 장비의 작동과 배치가 금지돼있습니다. 반경 3.6km까지는 허가받지 않은 인원의 출입이 차단되고, 5.5km까지는 항공기, 전자장비 등 폭발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와 전투기를 조종, 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이 통제된다고 미육군 교범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원불교에서는 성지수호 차원에서라도 한반도에 사드배치를 반대한다고 천명했습니다. 지난 9월7일 낮 12시에는 서울 용산 국방부 앞에서 300여명의 원불교 교부들과 성주, 김천시민 30여명이 사드배치 반대 기도를 올렸습니다. 이 시간에도 성주에서는 군민들과 함께 사드반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공자에게 경제적으로 든든한 후원자였던 제자 자공이 정치의 핵심에 대해 묻자, 공자는 군사력과 경제력과 백성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군사와 식량의 확보는 미룰 수 있으나 백성의 신뢰를 잃어버리면 설 수가 없다고 ‘논어’에서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임진왜란 전쟁 초기 일본 군대는 저항하지 않는 백성에 대해선 우호적인 정책을 폈습니다. 조선 왕만 잡으면 전쟁이 끝난다고 봤는데, 그럼 조선 백성들을 그들이 다스려야 합니다. 다스릴 백성 수를 굳이 줄일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런데도 의병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조선 백성예겐 ‘이 나라는 지킬 만한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또 나라를 위해 희생하면, 보답이 있을 것이라는 신뢰도 있었지요. 하지만 한양을 버리고 도망간 지배층이 이런 믿음을 갱했습니다. 의병장을 의심하고 탄압했죠. 일본의 두 번째 대규모 침략, 정유재란 때는 의병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니다. 일본 군대의 점령지 정책이 가혹하게 바뀌었는데도 말이지요. “백성의 믿음이 없으면 나라가 설 수 없다”는 유교 정치 이상에 비춰보면, 선조의 조선은 이때 무너진

겁니다.

달의 원래 모습은 꼭 찬 보름달의 모양입니다. 초승달, 상현달, 하현달, 그믐달은 전체 모양이 아닙니다. 태양의 빛을 받은 부분만 우리들이 보는 것입니다. 초승달을 달의 전부로 착각하듯, 사드배치를 북한의 핵무기에 대응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한 유일한 해결책으로 바라보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2017년 북한과 남한의 국방비 지출이 1조 대 40조인 상황에서 국제정세를 무시하고 강대강의 논리로 전쟁을 부추기는 정부는 백성의 신뢰를 얻지 못합니다.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외부세력으로, 좌빨로 치부하는 정권은 누구를 위한 정치를 하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성주는 온 군민이 길바닥으로 나왔습니다.

아줌마들은 집에서 밥을 하고,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하고, 종교인들은 각자의 종단에서 신앙하는 본업에 충실할 수 있는 대한민국은 정녕 꿈에서나 가능한 일인지 박근혜 정부에 묻고 싶습니다.

※이 칼럼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기 고

가을철 진드기 알리지 마세요

어려움 중 하나가 진드기나 모기와 같은 매개동물이 옮기는 열성질환의 증가라고 한다. 실제로 질병관리본부 자료에서도 연간 실증가무시증 환자수가 계속 증가하여 2010년부터는 1만명을 넘어서고 있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도 통계집계를 시작한 2013년부터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동안 진드기들이 이런 감염병을 옮긴다는 사실만 알고 있었지, 야생에서의 진드기 종별 분포와 서식상태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따라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2년 전부터 자연환경계에 대한 진드기 감시와 보건소를 통한 지역 내 발열성질환 환자에 대한 확인진단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들쥐 및 진드기 발생감시는 광주지역 내 야산 및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진드기가 기생하고 있는 들쥐 포획을 통하여 발열성질환에 감염된 쥐들이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함과 동시에 그 들쥐에서 포집한 탈진드기의 종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실제 찌르가무시를 보건하고 있는 비율은 얼마나 되는지를 보는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생에 서식하고 있는 참진드기를 용조각으로 채집하여 종 분포와 서식상태를 확인하고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보유율을 조사하

는 것이다. 이러한 매개체감시는 매월 수행하고 있으며 그동안 조사결과와 들쥐에서의 발열성질환 항체보유율은 50%정도였다. 그리고 봄에는 참진드기가 많고 가을에는 탈진드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것과는 달리 지난 2년간의 광주지역 진드기 감시사업 결과를 보면 9월에 채집한 참진드기 수가 오히려 탈진드기 수보다 매년 많았다. 따라서 참진드기가 옮기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은 봄에만 주의하면 된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봄철부터 초가을까지 지속적으로 주의해야 하고, 본격적인 가을에 접어드는 10월부터는 탈진드기가 옮기는 찌르가무시를 가장 주의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매개체감염병의 발생은 매개체의 분포와 숙주동물인 설치류 등에 영향을 주는 자연생태계의 환경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 앞으로 의학, 매개체 생태, 방제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는 광범위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기에 진단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백신 개발까지 연결돼야 한다.

신증후출혈열을 제외한 찌르가무시증과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발열성질환은 현재까지 예방할 수 있는 백신

이 개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야외활동 후 고열, 오한 등의 증상이 나타나면 초기에 치료받는 것이 중요하다.

다른 감염성질환과 달리 진드기에 물리지 않으면 감염되지 않은 만큼, 사소한 예방수칙만 준수한다면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하다. 따라서 야외활동 중에는 풀밭에 옷을 벗어 놓거나 눕지 마라, 작업 시에는 반드시 바지나 긴 소매가 있는 옷과 장화 등을 착용한 후 일을 하며, 작업 후에는 샤워를 하고 입었던 옷은 반드시 세탁해야 한다.

그러대 이은일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평균온도가 1도 올라갈 때마다 찌르가무시는 13%, 렘토스피라는 18% 증가한다고 하는데, 지난 100년간 지구의 평균기온이 0.7℃ 상승할 때, 우리나라는 1.5℃가 상승했다고 한다. 더욱이 우리나라 기후가 점점 아열대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열대성 감염병의 토착화와 기존의 매개체감염병의 증가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함은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일이다.

광주보건환경연구원은 앞으로도 매개체감시와 확인진단을 통해 시민들의 발열성질환 파수권역함을 함으로써 시민들이 건강하고 즐거운 가을을 만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다.

社 說

‘최순실 권력형 비리 의혹’ 과연 논픽션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 실세가 개입했다는 미르재단·K스포츠재단 의혹을 놓고 여야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야당은 이를 ‘권력형 비리’로 보고 집중포화를 퍼붓고 있다. 반면 여권은 정치공세라며 맞받아치고 있다.

의혹의 골자는 박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고(故) 최태민 목사의 딸이자 정윤희 전 보좌관의 전 부인인 최순실 씨가 두 재단 설립과 운영을 주도하며 비위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야당은 우선 재단 설립 몇 달 만에 기업들이 486억 원(미르), 288억 원(K스포츠) 등 모두 800억 원가량을 출연한 배후에 안종범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있다고 주장한다.

최 씨가 K스포츠재단 이사장에 단골 스포츠마사지센터 원장을 앉히는 등 운영에 개입한 정황도 제기했다. 단 하루 만에 재단 설립 허가가 났고 관련 양쪽 서류마저 흡사한 점도 예상외로 지 않은 데다 기업들의 거금 출연, 불투명

한 재단 운영 등을 종합할 때 권력의 뒷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주장이다. 많은 사람들은 또 30년 전 기업으로부터 거액을 모아 퇴임 후를 대비하기 위해 만든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을 떠올리기도 한다.

여권은 이에 대해 언급할 만한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박 대통령도 여제 “(북핵 위협의) 비상사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세간의 의혹은 갈수록 불어나고 있다. 이제 박 대통령의 임기는 1년 반밖에 남지 않았다. 따라서 의문을 잠재우고 국정 투명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의혹을 소상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 정부 여당의 주장대로 그들이 떳떳하다면 적극적으로 명쾌한 해명을 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물론 잘못 된 부분이 있다면 사정 것은 자르고, 될 것은 부리고 가는 게 정권의 부담을 더는 측면에서도 현명할 것이다.

재난 대피시설 지진엔 무용지물이라는데

최근 경북 경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사실이 입증됐다. 이는 광주·전남 지역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하지만 이 지역에는 내진설계(耐震設計)된 비상 대피시설이 거의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재난 대피시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현재 비상 대피시설은 광주 123곳, 전남 1313곳 등 모두 1436곳에 달한다. 문제는 이들 시설 대다수가 지진 발생 때는 무용지물과 다름없다는 데 있다. 내진설계가 적용된 시설이 일부 있긴 하지만 대부분 민방위 기본계획 및 집행계획에 따라 공습·미사일·화생방 공격 등을 대비해 만든 대피시설이기 때문이다. 사실상 해당 시설로 대피할 경우 오히려 더 큰 인명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사정은 더 우려스럽다. 교육당국이 파악한 바로는 전국적으로 교

육 관련 건물의 내진설계 비율이 23.8%에 그치고 있는데, 광주에 있는 학교 강당·급식실 등 대피시설도 그 비율을 넘지 못하고 있다. 학교 운동장이나 공원 등 야외에 지정된 대피 공간도 위험에 노출돼 있기는 마찬가지다. 야외 없는 것으로 밝혀져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이 보니 추운 겨울이나, 지진으로 유해물질 누출 등이 있으면 안전하게 대피할 장소로는 부적합하다.

따라서 이제 광주시와 전남도는 비상 대피시설에 대한 내진 설계 보강 등 안전 인프라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의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재난 재해 대비 안전시스템을 총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 당장 대대적인 인프라 보강이 힘들다면 유사시에 대비해 내진 설계가 잘된 건물을 시민에게 홍보하는 한편 지진 대응 매뉴얼을 만들 필요가 있다. 언제 또 발생하지 모르는 지진은 사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법이다.

無 等 鼓

우리나라가 중국에 조공을 보냈다는 공식 기록은 ‘삼국사기’에 처음 등장한다. BC 32년 고구려의 대무신왕이 후한에 사신을 보내 조공을 바치니 후한의 광무제(光武帝) 왕후를 회복시켜 주었다는 내용이다.

백제와 신라도 마찬가지로 중국과 조공 관계를 가졌으며, 고려를 거쳐 조선 시대에 들어서면서 조공은 제도적으로 정비되고 체계화되었다. 특히 조선은 ‘큰 나라는 받들어 섬기고(事大), 이웃 나라와는 대등한 입

장에서 사귀는(交隣)’ 사대교린을 기본 외교 정책으로 채택해

우황청심원

중국과의 사신 왕래가 빈번했다. 조선은 매년 4차례씩 정기적으로 사신을 보낸 것은 물론 7~8차례 임시 사신을 중국에 파견하곤 했다. 조공으로 보내는 물품은 금·은·종이·호랑이 가죽 등 우리 특산물이 대부분이었다. 특히아계도, 중국에 가는 사신들은 이들 물품 외에 반드시 한 가지 물건을 더 가져가곤 했으니 우황청심원이 바로 그것이다. 조선의 사신들은 일인당 100~200알의 우황청심원을 지니고 길을 떠났는데, 물론 상비약으로 가져간 것은 아니었다. 당시 중국에서는 조선 고유의

로 이 우황청심원을 직접히 활용하곤 했다. 한 알의 약이 국가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율령제 역할을 한 셈이다. 사드 갈등으로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찾는 수백만 중국 관광객 등 우리 화장품을 씌쓸이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조선 사신들이 지니고 있던 우황청심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된다.

알고 있었기에 북경가 지 천리 길을 탈 없이 다녀오기 위해 일종의 ‘급행료, 또는 통행료’

로 이 우황청심원을 직접히 활용하곤 했다. 한 알의 약이 국가 간의 관계를 매끄럽게 만드는 율령제 역할을 한 셈이다. 사드 갈등으로 한풀 꺾였다고는 하지만 한국을 찾는 수백만 중국 관광객 등 우리 특산품을 씌쓸이해가고 있다. 이런 현상을 보고 있노라면 조선 사신들이 지니고 있던 우황청심원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을지 짐작이 된다. 요즘 사드를 둘러싸고 한중 양국 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다. 우황청심원처럼 양국 관계를 매끄럽게 이어줄 비방은 없을까? /홍행기 정치부장 redplane@

| | | | |
|--|-------------------------------|----------------------------|---------------------------------------|
| 光 州 日 報 | | The Kwangju Ilbo | |
|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 | 주필 李洪載 | 편집국장 程厚植 |
|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일간) |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 |
|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 | 광고문의 062-227-9600 | |
|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 경영지원국 (FAX 222-8005) |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
| 편 집 부 220-0649 |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 기획관리국 227-9600 |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
| 정 치 부 220-0632 | 문화미디어부 220-0664 | 다 지 안 실 220-0536 |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
| 사 회 부 220-0642 | 체 육 부 220-0697 |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 |
| 사 회 2부 220-0652 | 사 진 부 220-0693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